

중국, 경제 하강국면 뚜렷하다!

기준금리 인하 주장 술술 ... 대출금리 하한선 0.8배가 유력

중국 경제가 부진을 면하지 못하면서 경기부양 대책의 일환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적 여건 악화로 성장 둔화의 늪에서 빠져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중국 경제에 금리 인하가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에 따르면, 중국 경제의 하강국면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거시경제 조정력도 점점 약해지고 있어 중장기적인 은행 대출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금리 인하를 통해 단기 경제 안정의 주요 수단인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되고 있다.

동시에 시장금리 수준이 대폭 낮아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비교적 강해지고 있다.

4월 경제지표는 대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해지면서 수출이 낙관할 수 없게 됐고, 고정자산투자 누계치도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공업기업의 이윤 감소세도 계속되고 있다.

경제지표는 역사적으로 보여주었던 경제침체 국면에 해당한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금리 인하로 방향이 잡히면 시점은 6월 초순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월1일에는 5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 3일에는 비제조업 PMI, 9일에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5월분 주요 경제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이다.

경제지표가 4월에 이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면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중국의 기준 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 연간 3.50%이며 대출금리는 6.56%이다. 중국은 2010년부터 시작된 물가 급등에 따라 2011년 7월7일까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린 이후 계속 기준금리를 동결해왔다.

다만,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점은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중국 정부가 금리 조정에 나서면 예금과 대출 금리를 동시에 내리는 <대칭성 금리 인하>와 대출 금리만 내리는 <비대칭 금리 인하>를 놓고 고심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뜰이나 예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금금리를 내리면 <마이너스 금리>가 불가피해 대출금리만을 내리는 방안이 시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바클레이즈는 중국 정부가 내수경기 부양조치를 강화하겠지만 대출 기준금리를 내리기보다는 대출 기준금리의 0.9배로 돼 있는 대출금리 하한선을 0.8배로 인하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6/01>